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 –

분사 후에 의식개혁 진전

다이와보는 구조조정의 하나로 방적부문을 분사(分社)하여 설립한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(materials)가 2002년 11월부터 독자적인 경영을 시작한 이래로, 생산 품종이 다양화하고 있다. “공장의 조업상태는 분사 전과 달라진게 없지만, 공장 내 모든 임직원의 의식이 개혁되고 있다. 그 동안 품질이 향상되었고, 주문자를 위한 섬세한 대응도 가능하게 되었다. 또한 공장측이 기획한 특화사(特化絲)의 개발도 잘 추진되고 있다”고 분사 후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.

생산품종이 많아진 것은 특화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. 분사 전에는 170건의 테마로 특화사를 개발하였는데, 금년에는 더 많은 테마를 개발하고 있다. 개발은 ①제품을 살리기 위한 매력 ②실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는 매력 ③제안(提案)형의 개발 등의 3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.

와까야마 공장은 OE 정방기를 주축으로 하여 OE의 특징을 살리는 관점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 현재는 월 2,000곤(梱)을 생산하고 있는데, 특화사를 개발하기 위하여, 정방 전(前)의 공정은 두 배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설비를 가지고 있다. 앞으로는 다품종 소로트 대응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안 중지하고 있던 케이폭이나 케나프의 혼방사도 30% 혼방으로 변경하여 다시 생산할 예정이다.

한편 링 정방기를 주축으로 한 마이즈루 공장에서는 “초고품질”을 테마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